

(768)

조선

주제 109
(2020)

7



차 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1
수령님과 잠학박사	2
흙모의 마음을 담아	4
오늘도 빛나는 영웅들의 삶	8
태성호반의 골프장	10
민족체육 씨름	16
동화의 세계를 펼친 아동병원	18
황해북도양보장이 일떠섰다	20
전망이 좋은 돌가공공장	22
자력으로 흥해가는 고장	26
흐뭇한 다시마작황	30
한생을 교각에서	32
두뇌전의 승자들	33
은 성 착	34
부드럽고 우아한 음식을 살려	36
다양한 경질유리제품들을 생산한다	38
력사유적 안 국 사	4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가
6월 7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첫째의정으로 나라의 화학공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화학공업의 구조를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속적인 발전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둘째의정으로 수도시민들의 생활
보장에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도시민들의 생활
보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인민생활보장과
관련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울데 대하여 강조
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의정과 둘째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셋째의정으로 현행당사업에서 제기
되는 일련의 규약상문제들을 일부 수정하고 당규약개정
안에 반영할데 대한 의견을 심의비준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넷째의정으로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전국농업협동조합관리일군열성자대회에 참가한 계응상선생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5(1956)년 2월



계응상선생과 함께 농업과학위원회 시험포전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1(1962)년 9월



로력영웅 인민상계관인 원사 교수 박사 계응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기적으로 억압 받고 천대받던 조선인민이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여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이시였다.

그이의 손길아래 궁지높은 생을 빛내인 지식인들속에는 유전학자이며 잠학자인 계응상 선생도 있다.

수령님과 잠학박사

1893년 12월 오늘의 평안북도 정주시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향학열이 비상히 높았다.

그는 지난 세기 전반기 일체의 군사적강점 시기 사라졌던 조선의 전통적인 잠업을 발전시킬 포부를 품고 외국으로 가서 고생스럽게 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물론 그후 연구사업을 위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방황하면서 나라없는 지식인의 설움만 더욱 절감한 그였다.

남조선의 경기도 수원에서 조국해방(1945. 8. 15.)을 맞이한 후에도 그의 운명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계응상선생은 주체35(1946)년에 평양에 건립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수로 초청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촉장을 받고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주체35(1946)년 10월 27일 계응상선생을 만나시여 나라의 잠업을 발전시킬 문제를 함께 의논하시며 그 방도도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만나주시며 그의 사업과 생활에 깊

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은 계응상선생이 자기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나라의 잠업발전과 전도유망한 생물학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계응상선생은 한생을 잠학연구에 바쳐왔다.

달성하도록 한 원천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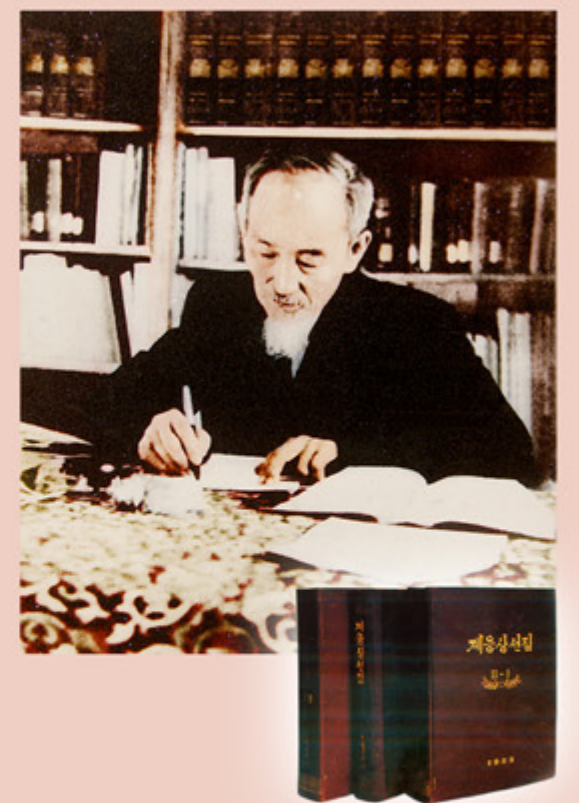
누에의 해부생리, 유전, 육종에 관한 선생의 연구성과들을 수록한 전 3권으로 된 《계응상선집》도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출판되었다.



베이징국제과학토론회에 참가하여 주체53(1964)년

위대한 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 그는 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로력영웅 원사 교수 박사로 조국과 인민이 아는 과학자로 영생의 언덕에 오르게 되었다.

글 최의림



《계응상선집》이 출판되었다.



상아공예 《가지》
구월서방 일군일동
주체51(1962)년 4월



유리제품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일동
주체61(1972)년 4월



현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71(1982)년 4월



옥돌공예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기후현본부 상임위원회
주체64(1975)년 10월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룡악산지구에 국가
선물관이 자리잡고있다.

이곳에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히시였으며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의 통성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세계
각지의 조선사람들이 드린 선물들이 소중한 전시
되어있다.

재일조선인들이 드린 현시를 비롯한 선물

들에는 이역의 동포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공화국에로의 귀국의 배길도 열어주시고 그들이
자주적존엄과 삶을 빛내이도록 크나큰 로고를
기울이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이 깃들어있다.

뿔공예 《금붕어》와 투각무늬도자기꽃병을
비롯하여 중국과 로씨야, 미국,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해외동포들이 드린 선물
들에도 온 세계가 흠모하는 천출위인을 모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뜨겁게 어리어있다.

국가선물관에는 하늘같은 도량과 바다같은
포용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어 남녘의 각계층 인사들이 삼가 드린
선물들도 수없이 많다.

후손만대에 전해질 이 선물들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전체 조선민족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사진 리광성
글 리미예



광학공예 《축하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후꾸오까현본부
주체71(1982)년 4월



승용차
세계프로레싱 《왕자》 김신락(력도산)
주체51(1962)년 4월



수정그릇일식
국제래권도련맹 총재 최홍희
주제 72(1983)년 4월



도자기단지
배달민족회 회장 최덕신
주제 73(1984)년 5월



수지공예 《사슴》
제35차 재소동포조국방문단
주제 79(1990)년 11월



투각무늬도자기꽃병
제87차 재중동포조국방문단
주제 80(1991)년 9월



불공예 《금봉어》
중국연변텔레비존방송사업대표단
주제 82(1993)년 4월



옥돌조각 《달리는 두필의 말》
중국 료녕성 단둥시 금강산무역상사대표단
주제 83(1994)년 5월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조국수호정신을 발휘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평양시 서성구역의 석박산기슭에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지난 세기 50년대의 판가리결전
에서 위훈을 세운 영웅전사들의 유해가 이곳에 안치되어있다.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은 조선인민에게 있어 참으로
준엄한 시련이었다.

당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1945. 8. 15.)된지 5년밖에 안되던
조선인민이었다.

그러나 그 5년동안에 자신들을 땅과 공장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공화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히 체험한 그들이었다.

하기에 제국주의침략세력이 전쟁을 일으키자 이 나라의 수많은 아들딸들은
또다시 식민지노예로 살수 없어 귀중한 생명까지 서슴없이 바치면서 영웅하게
짜웠다.

가렬처절한 전쟁의 3년간 조국강토를 목숨바쳐 사수한 그들이 있었기에
67년전의 7월 이 땅에서는 위대한 전승의 축포, 승리의 축포가 울랐다.

영웅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이룩한 위훈과 함께 대를 이어 전해
가기 위해 나라에서는 주체102(2013)년에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새로 건립하였다.

사진 박창복, 글 최의림

오늘도 빛나는 영웅들의 삶



태성호반의 골프장



청년영웅도로를 타고 수도의 서남부교외로 20분정도 차를 달리면 평양, 남포지역에서 제일 큰 호수인 태성호를 가까이하게 된다.

언제나 맑은 물이 출렁이는 이 호수의 기슭에 근 200정보의 부지를 가진 평양골프장이 자리 잡고있다.

잔디발면적만도 46정보인 골프장의 총길이는 10. 2km이다.

매일 200명의 경기를 보장할수 있는 이곳에는 연장길이가 6 777yd에 달하는 18개의 홀이 있는데 가장 짧은 홀은 130yd, 가장 긴 홀은 580yd이다.

소나무들이 우거진 나지막한 산과 호수를 끼고 여러 봉사건물들과 쏘트장, 낚시터, 가족숙소, 일반숙소를 비롯하여 골프선수들과 애호가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있다.

지난해에는 물놀이장과 당구장, 운동실, 식사실들을 갖춘 종합봉사건물이 새로 일떠서

손님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산과 들, 호수의 경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언제나 신선한 공기가 차넘치는 이곳은 매력적인 휴식장소이기도 하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평양골프장 봉사자들의 친절함 봉사속에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기 위해 이곳을 즐겨 찾고있다.

사진 변찬우, 홍광남, 글 정기상







고구려 (B. C. 277년–A. D. 668년) 시기 씨름무덤의 벽화



18세기의 화가 김홍도가 그린 조선화 《씨름》

민족체육 씨름

조선민족이 창조한 문화유산들가운데는 씨름도 있다.

오랜 옛날부터 조선의 남성들은 로동의 실참이면 발머리나 잔디밭, 강가나 바다가의 모래밭에서 씨름을 즐겨하였으며 특히 민속 명절때는 경치좋은 곳마다에 꾸려진 씨름터에 모여와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승부를 겨루었다.

중국의 집안시에 있는 고구려(B.C. 277년–A.D. 668년)시기의 씨름무덤(4세기말)의 벽화에는 맨몸에 똑같이 짧은바지를 입고 살바를 맨 두명의 힘장사가 서로 상대방의 살바를 잡고 힘을 쓰는 장면이 생동하게 형상되어있다.

그옆에는 백발을 날리는 늙은 심판이 지평이를 짚고서서 경기를 주시하는 모습이 그려져있다.

고려(918년–1392년)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씨름은 대중적인 체육종목으로서 전국의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 씨름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을 용사, 력사, 힘장사라고 불렀다.

지난 시기에는 참가자들의 나이와 기술수준에 따라 애기씨름, 중씨름, 상씨름으로 갈라 진행하였다.

조선씨름은 다른 나라들의 씨름종목과 달리 살바를 사용하는것이 이채롭다.

하여 크게 손수, 다리수, 몸통수로 나누는



사회과학원 민족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임승빈

씨름기술의 결합 및 련결수법들만 잘 쓴다면 몸무게가 많은 상대라도 통쾌하게 이길수 있는 것이 조선씨름의 매력이다.

경기의 승부는 발목웃부분의 어느 부위라도 먼저 땅에 닿으면 패하는것으로 정하였다.

오늘도 씨름에 대한 조선인민의 관심은 계속 증대되고있다.

해마다 민속명절—추석을 계기로 평양의 룡라도에서는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대황소상전국민족씨름경기가 진행된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중앙과 각 지방에서 열리는 여러 경기대회들에서도 씨름은 가장 인기있는 경기종목의 하나이다.

임승빈



예로부터 조선인민이 즐겨해온 씨름은 오늘도 널리 장려되고있다.





동심에 맞게 꾸려진 환경은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이 아픔을 잊게 한다.



동화의 세계를 펼친 아동병원



평양산원과 마주하고있는 옥류아동병원은 바라볼수록 어머니품에 안긴 어린이의 모습과도 같이 안정감을 자아낸다.

마치 지능놀이감으로 아기자기하게 탑을 쌓아놓은듯한 병원의 외부는 물론 내부 역시 동화세계를 방불케 한다.

모든 복도와 계단 그리고 입원실, 치료실 등의 벽들까지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동화그림들로 장식되어있는데 그 수는 무려 1 720여점이나 된다.

병원의 여러곳에 꾸려진 실내놀이장들의 유희기구들과 오락기재들 그리고 휴식장들에 있는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폭신한 의자들도 나아린 환자들을 위해

기울인 다심한 노력이 어려웠다.

매충마다 호실마다 그려진 그림들을 하나 하나 유심히 관찰하기도 하고 놀이장과 휴식장에서 재미난 시간을 보내면서 병원에 와있다는감을 종종 잊는 아이들이다.

병원에 꾸러진 환경이 아이들의 병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부모들과 의사들은 한결 같이 말하고있다.

아이들을 위한 치료설비들도 훌륭히 갖추어져있는 이곳으로부터 각 도의 소아병원들 에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뻗어있다.

그밖에도 병원에는 구급환자들을 위한 직승기착륙장도 있고 아이들이 입원기간에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교실들까지 꾸려져 있다.

주체102(2013)년 10월 개원되어서부터 병원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웃음을 찾아주었다.

중독성소화불량증으로 의식을 잃었던 젓먹이어린이가 18시간만에 소생하고 10여년 세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소년이 완쾌 된것을 비롯하여 기적같은 사실들도 기록 하고있는 옥류아동병원이다.

사진 손희연, 글 김선경



간단한 운동과 지능놀이는 어린이들의 치료회복에 효과적이다.

황해북도 양묘장이 일떠섰다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성문동지구에 현대적인 양묘장이 일떠섰다.

20여정보의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양묘장에는 종자선별 및 파종장, 수지경관온실, 야외재배장, 경기질생산장 등 나무모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공정들이 집약적으로 배치되어있다.

양묘장건설자들은 앞선 단위들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도의 실정과 조건에 맞는 재배시설 및 공정들을 새롭게 갖추어 놓았다.

양묘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완공과 함께 도안의 산림복구장들에

나무모들을 즉시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었다.

특히 경영활동에서 관건적인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완강한 노력끝에 양묘장까지의 물보장체계를 자연흐름식방법으로 수립 함으로써 생산활성화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양묘장에서는 지금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모들이 푸르싱싱 자라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필



전망이 좋은 돌가공공장



황해남도 해주시 연하동에는 조선의 천연 석채자원에 대한 인식을 주는 기업소라고도 할수 있는 애국돌가공공장이 위치하고있다.

공장너머로는 하나의 거대한 화강석산지를 이룬 수양산의 산발들이 연연히 뻗어있다.

석채로서의 모든 질적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만족시키고있는 이곳의 화강석이다.

그리고 연간 수만m³의 채석능력을 가진 공장에서 지금까지의 10여년동안 캐여낸 원석량은 겨우 거대한 문어의 다리에 붙은 흠반 하나를 떼여낸것과 다름없다.

첨단설비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가공직장들에서는 채석장들에서 캐내는 화강암의 원석과 황해남도의 여러곳에서 나는 사문암과 섬장암 등으로 각종 규격의 판석류와 란간 및 란주류, 경제석 등을 생산하고있다.

제품가공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은 종합조종실의 관리조종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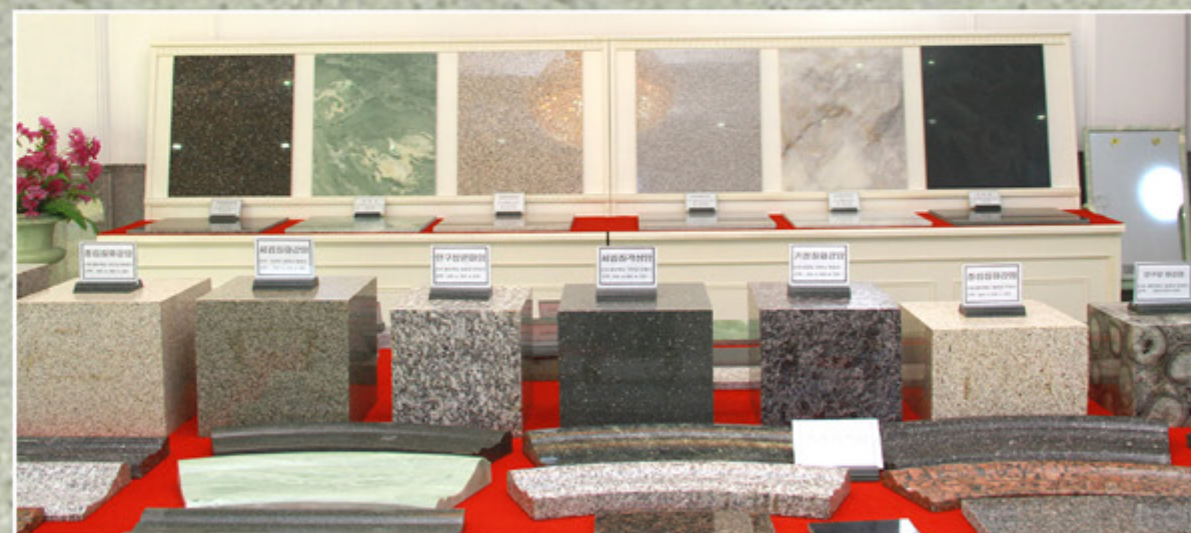
최근년간 조선에서 솟아오른 웅장화려한 건축물들치고 애국돌가공공장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은 곳이란 거의나 없으며 그에 대한 수요는 지금도 늘어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최광호





애국돌가공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일부





자력으로 흥해가는 고장



금야강은 평안남도 양덕군과 함경남도 수동구의 경계에 솟은 기대봉에서 시작하여 요덕군, 금야군을 지나 조선동해의 송전만에 흘러드는 강이다.

금야군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이 강을 다스려 보배강, 행복의 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에도 다년간의 완강한 노력끝에 룡원리지역에 새로운 중소형 발전소를 일떠세웠다.

이 일대는 상류의 금야강군민발전소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퇴수와 주변의 산골짜기들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해서 갈수기에도 수력자원이 풍부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반도 좋아 건설물들의 견고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군의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장마철피해를 철저히 방지하게 되었으며 주민용음료수와 공업용수, 관개용수문제도 원만히 해결되고 류역의 자연 풍치도 보다 아름답게 변모되었다.

금야강2호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물관리, 설비관리를 과학 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발전기 호기당 출력을 높이는것과 함께 송전계통을 더욱 완비하면서 전력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군에서는 축산업도 적극 장려하고있다.

군소재지에서 금야강의 상류쪽으로 30여리정도 가면 여러 집짐승호동들이 골마다 규모있게 들어앉은 금야청년목장이 나진다.

자연물관과 인공물관이 훌륭하게 조성된 주변의 높낮은 산과 구릉마다에서는 염소와 양떼들이 유유히 흐르고있다.

집단사육과 분산사육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염소, 양, 토끼를 비롯한



금야군에서는 유리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축산업발전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풀먹는집짐승기르기를 줄기차게 내밀고있는 이곳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금야강의 하류지역에 자리잡고있는 금야젖소목장의 모습도 찾아오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곳에는 젖소방목과 사육에 좋은 여러가지 식물들이 자라는 수백여정보의 풀판이 펼쳐져있다.

목장에서는 해마다 여기에서 나는 풀들로 질 좋은 사료들을 만들어 한겨울에도 소젖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우량품종에 의한 종축체계와 수의방역체계 등이 정연하게 세워져있는 목장들에는 종업원들의 축산기술지식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과학기술보급실들도 번듯하게 꾸려져있다.

목장들에 있는 현대적인 젓가공기지들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가공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최원철, 홍래웅
글 박병훈



흐뭇한 다시마작황

해마다 5, 6월이면 조선 동서해안의 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는 다시마수확이 한창이다.

사철 물이 맑고 공해가 전혀 없는 조선의 해안가들은 바다양어 및 양식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있다.

그러나 최근년간 세계적범위에서 지속되고있는 이상기후현상은 바다가양식업에도 적지 않은 애로를 조성하고있다.

그런 속에서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각지의 바다가양식사업소들에서는 다시마와 미역, 김, 굴, 섭조개, 밥조개를 비롯한 바다동식물을 양식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특히 영양성분의 보물고로서 식용 및 약리적가치가 매우 높아 그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있는 다시마의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지난해에는 많은 단위들에서 빨리 자라고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을 도입하는것과 함께 양식장들의 면적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대담하게 전개하였다.

또한 자기 단위의 좋은 경험들을 교환하고 서로 배워주며 선진적인 기술을 제때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한 결과 많은 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지난 시기와 달리 다시마모보충사업에 큰 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생산량을 훨씬 늘이게 되었다.

하여 불리한 이상기후가 계속되었지만 올해의 수확철에도 각지의 포구들마다에서는 바다나물향기가 짙게 풍기게 되었다.

사진 신충일, 글 김필



평양기계대학의 교육자들속에는 신금순도 있다.

주체44(1955)년 11월 강원도 금강군의 한 산골마을에서 군관의 딸로 태어나 어릴적부터 공부를 무척 잘하였던 그는 수학, 물리과목을 특히 좋아하였다.

그래서 고등중학교(당시)를 졸업하면서 지방 대로 평양기계대학 건설기계공학부에 입학하였다.

정열이 안받침된 그의 뛰어난 실력은 학급동무들은 물론 교원들까지 놀라게 하였다.

대학생시절에 이미 물고기가공설비를 설계하고 현실에 도입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다.

주체70(1981)년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모교의 교단에 서게 된 신금순은 지금까지 40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다.

알기 쉽게 통속적이면서도 심도가 있는 그의 강의는 언제나 학생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를 위해 그는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는것과 함께 능숙한 강의술을 지니기 위해 늘 애썼다.

이 과정에 20여건의 새 교수방법도 창안하였고 기계공학분야의 여러 교과서, 참고서들도 집필하였다.

신금순의 재능은 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1990년대에 권양설비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쇠바줄장력



한생을 교강에 쉬

측정장치를 설계제작하여 내놓았다.

그리고 이 장치를 현실적조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내밀었다.

휴대용쇠바줄장력측정장치를 비롯하여 그가

설계제작한 여러 기계설비들이 전국기계설계 축전을 비롯한 과학기술축전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오늘 현실에서 커다란 실리를 날고있다.

그는 대학이 자랑하는 녀성박사들중의 한명이다.

사진 안철룡
글 김선경



원격강의에도 출연하여



신금순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도 참가한다.

두뇌전의 승자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응용수학부 강철룡 (왼쪽) 과 정보과학기술학부 김성은 (오른쪽)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학생들이 5월에 진행된 《코드쉐프》 경연에서 1, 2등을 쟁취하였다. 인터넷프로그램경연들중의 하나로서 매달 진행되는 《코드쉐프》 경연에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의 프로그램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순위를 다투고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경연의 참가국과 지역은 조선과 중국, 로씨야, 캐나다, 인디아를 비롯한 80여개, 참가자는 무려 2만여명이였다.

2개의 부류로 나뉘어 진행된 경연에서 조선의 대학생들은 난도가 높은 1부류경연에만 참가하였다.

경연에 제시된 10개의 문제중에는 1개의 도전문제가 포함되어있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참가자들은 명성높은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에서 배우고 다져온 자신들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해 피타는 사색과 심혈을 기울였다.

결국 1부류경연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응용수학부 4학년생 강철룡과 정보과학기술학부 2학년생 김성은은 지난 기간 세계적으로 공인된 여러 나라의 프로그램전문가들을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누르고 1등과 2등을 차지하는 전례없는 기록을 창조하였다.

이미 여러해동안 이 경연에 참가하여 훌륭한 성과들을 거듭 달성하여오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은 올해의 2월부터 4월까지도 련속 높은 순위에 들었었다.

사진 문은경, 글 정기상



은 정 차

조선민족은 오래전부터 차를 즐겨 마셔온다.

약리적가치가 높은 나무열매나 뿌리, 잎 등을 말리워 우리거나 달여 만든 인삼차, 결명자차, 오미자차, 솔잎차 등은 조선인민이 널리 마셔온 차이다.

은정차도 조선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은정차나무는 황해남도 강령군과 강원도 고성군 등 기후가 온화한 지대들에서 재배되고있다.

차나무의 잎은 1년에 4~5번 수확하는데 그 량과 질은 1차 수확때가 제일이다. 재배원들에서는 잎따기를 주로 새잎이 5잎 되었을 때 하는데 그중 3잎은 따고 2잎은 다시 햇순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남겨둔다.



따들인 차잎들은 그 가공방법에 따라 록차와 홍차 등으로 구분된다.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있는 은정차는 건강에도 대단히 유익하다.

전문가들은 이 차에 여러가지 약리작용을 하는 성분들과 필수아미노산, 비타민C, E를 비롯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있어 정상적으로 마시면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비대를 막고 심장 활동을 유연하게 하며 피로회복과 노화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하고있다.

평양시를 비롯한 도처에 은정차를 봉사하는 차집들이 있어 사람들의 정서생활을 더욱 풍만하게 해주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최이림





부드럽고 우아한 음색을 살려

- 평양피아노합영회사에서 -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30여년의 연혁을 가지고있는 평양피아노합영회사가 위치하고있다.

오늘 국내에서 사용되고있는 그랜드 및 아프라이트형의 피아노들은 거의나 이곳에서 제작된것이다.

13 000㎡의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회사에는 피아노제작을 위한 모든 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피아노를 제작하는데 국내에서 자라는 가문비나무, 복자기나무, 피나무를 비롯한 목재들과 세계적으로 공인된 우수한 자재들을 리용하고있다.

수십년간 이곳에서 일하여오는 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기능공들의 예술적인 감각, 섬세하고 정확한 일습씨는 소재의 선택으로부터 가공과 완성, 조립과 검사에 이르는 피아노제작의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흐르도록 하고있다.

이곳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발전전략을 높이 세우고 나날이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와 기호에 맞게 보다 훌륭한 피아노를 창안제작하기 위해 분발하고있다.

맑고 풍부한 음량과 화려한 음색을 갖추고 연주감각이 예민한것으로 하여 회사의 제품들은 많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최광호



다양한 경질유리제품들을 생산한다



자강도 희천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집기류를 생산하고 있는 희천경질유리그릇공장이 있다.

주체94(2005)년 9월에 조업한 공장에는 원료공급공정, 유리용융공정, 성형공정, 문양장식공정, 강질열처리공정 등 원료의 투입으로부터 완성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에 걸쳐 현대적인 자동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이곳에서는 평안북도 념변군일대에 풍부하게 매장된 순도높은 규석과 장식 등을 기본원료로 하여 밥그릇 및 국그릇류와 공기류, 접시류를 비롯한 40여가지의 경질유리그릇제품을 만들고있다.

최근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모양과 크기, 용도가 다양하면서도 그 리용이 보다 편리한 그릇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새 제품도안창작을 적극 내미는것과 함께 선진적인 형태설계 및 제작방법을 받아들여 수십종에 달하는 새 제품형태

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문양장식색감을 자체로 개발하고 각이한 부착기술을 생산에 도입하였으며 필요한 내화벽돌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로의 리용률을 훨씬 늘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가장 합리적인 원료배합비율을 확정하여 용융로의 유리물생산을 보다 늘어 제품생산을 10%이상 장성시켰다.

공장에서는 이와 함께 그릇들의 색도와 기계적세기, 내열성, 점결도를 비롯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다그치고있다.

하여 주체104(2015)년에 이미 국내의 최우수제품들에 수여되는 12월15일품질메달을 쟁취한 경질유리그릇세트를 비롯한 공장의 제품들은 날이 갈수록 그 질이 계속 높아져 사람들의 커다란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안 국 사



안국사 9층탑



부도



래평루, 료사채, 대웅보전, 주필대

평안남도 평성시 봉학동에 위치한 안국사는 고구려(B.C. 277년~A.D. 668년)시기의 력사 유적이다.

력사기록에는 이 불교사찰건설이 503년부터 20여년간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후 안국사는 1419년에 다시 지은데 이어 여러차례 고쳐지었다.

지금은 대웅보전을 비롯하여 정면의 태평루, 서쪽의 료사, 동쪽의 주필대가 남아있으며 래평루앞에 고려(918년~1392년)시기의 9층탑이 서있다.

사찰의 중심건물인 대웅보전은 높은 축대우에 기단을 쌓고 그우에 세운 정면 5칸(17.04m), 측면 4칸(13.2m)의 2층겹처마합각집이다.

건물안의 세 공간에 걸치는 큼직한 불단우에 불상들이 있으며 그 뒤에는 탱화(불교그림)들이 걸려있다.

건물에는 금단청을 입혔다.

태평루는 대웅보전의 앞에 있는 정면 5칸(19.25m), 측면 2칸(6.8m)의 겹처마합각루정이다.

그 앞에는 고려중기이후의것으로서 높이가 6.23m인 정4각형구조의 9층탑이 서있다.

이곳에는 1400년경에 심은 높이 27m, 밑둘레 10m인 은행나무가 있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다.

안국사는 오늘 나라의 민족문화유산보존 정책에 의해 원상대로 보존관리되고있다.

사진 안철원, 글 김선경

